

한국출판계를 이끈 '거목'

창업 50주년 맞은 을유문화사 정진숙 사장

“해방 이후 모두가 민족정기의 복구에 매달릴 때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집안 어른인 위당 정보 선생의 제의를 듣고 출판업을 택한 게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문자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판단 아래 10년 동안 다니던 동일은행(현 조흥은행)을 그만두고 출판계에 뛰어들었지요.”

해방의 감격을 출판사명으로

정확하게 지난 12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을유문화사 사장 정진숙(83, 한국출판금고 이사장)씨는 해방 이후 한국출판계를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출판계의 거장이다. 그가 해방되던 해의 감격을 영원히 기억하는 의미에서 출판사명을 지었던 을유(乙酉)가 2천5백종에 이르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50살이 되었다. 처음엔 민병도, 윤석중, 조풍연씨와 함께 출판사를 꾸려 나가다 52년 단독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을유는 74년 종로구 수송동에 현 사옥을 지어 이전할 때까지 낙양의 지가를 올리며 성장했다.

을유가 출판사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혀나갈 무렵인 62년, 정진숙 사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11대에 걸쳐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관건립, 출판금고 설립, 독서신문 창간 등 출판계 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 그후 지금까지 그는 출판계에서 말과 행동의 권위를 인정받는 최원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각경의 《가정글씨체첩》을 내면서 출판을 시작한 을유문화사는 문학사에 기록될 시집인 《청록집》,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등과 《한국고대소설전집》(전20권) 등 문학전집을 연이어 출간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음은 물론 《한국문화총서》, 《세계사상전집》 등으로 당시 지식인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글학회의 《큰사전》과 한국 지성사에 기록될 《세계문학전집》(전60권), 진단학회에서 펴낸 《한국사》(전7권) 등도 관련학계나 출판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출판물이었다.

《을유문고》시리즈를 통해 문고판 붐을 주도 하기도 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을유에서 나온 문고판을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는 정진숙 사장의 술회는 그

해방되던 해의 감격을 영원히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름지은 '을유'는 2천5백 종의 책을 출간하면서 어느덧 50살의 나이를 지니게 됐다. 50년 동안 출판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여러 악조건에서도 정력적으로 일했던 창업 초창기였다고 정진숙 사장은 회상한다.

런 을유의 역사를 잘 대변해 준다.

“50년 동안 출판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역시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작업에 매달렸던 초창기였습니다. 그 시절 《큰사전》은 종이 등 물자부족으로, 《한국사》는 원고지연 등 진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물자부족으로 10년 걸린 《큰사전》

특히 그는 《큰사전》에 대한 남다른 기억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47년 봄 당시 조선어학회 회장이었던 이극로씨가 원고를 들고 찾아와 나라를 찾았으니 말도 찾아야 된다면서 사전출판을 의뢰했을 때, 그는 제대로 된 국어사전 하나 없는 통분에 수락했고 결국 《큰사전》이라는 결정체를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 당시 다른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을유라는 신생출판사를 찾아온 큰사전 원고는 일제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총독부에 압수되어 행방이 묘연하다 해방직후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항쟁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의미있는 원고였다. 결국 물자 부족으로 미국·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큰사전》은 햇빛을 보게 된다.

어렵던 시절 을유문화사를 통해 학문의 뜻을 펼친 이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백, 조운제, 손진태씨 등이었고 《한국문화총서》를 내면서 7명의 박사를 탄생시키는 산파역을 해내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을유는 50주년을 맞은



을유문화사 정진숙 사장.

한해를 조용히 보냈다. 요란스럽게 기념하고 싶지 않다는 정진숙 사장의 당부 때문이다. 유일한 기념사업으로 준비했던 《을유 50년사》 편찬 작업도 진행을 도맡았던 고정기 편집상무가 두달전 작고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사장은 최근의 출판풍토를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대국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출판풍토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

“출판풍토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출판계 전체를 엄습하고 있는 불황이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출판업종 자체가 살아남아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생산비 정도는 유지돼야 출

판사들이 안심하고 양서를 출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출판은 이득보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정진숙 사장은 매일 사무실에 빠짐없이 출근하고 공식적인 일에도 꾸준히 참석하는 등 예전같지는 않지만 출판계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을유는 3남 정필영씨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계획 아래 재도약을 위한 수순을 천천히 밟아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한 독자층을 일반대중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의도로 참신한 기획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 흘러온 을유의 반세기는 이제 한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는 셈이다.

—허연 기자